

특선  
SPECIAL PRIZ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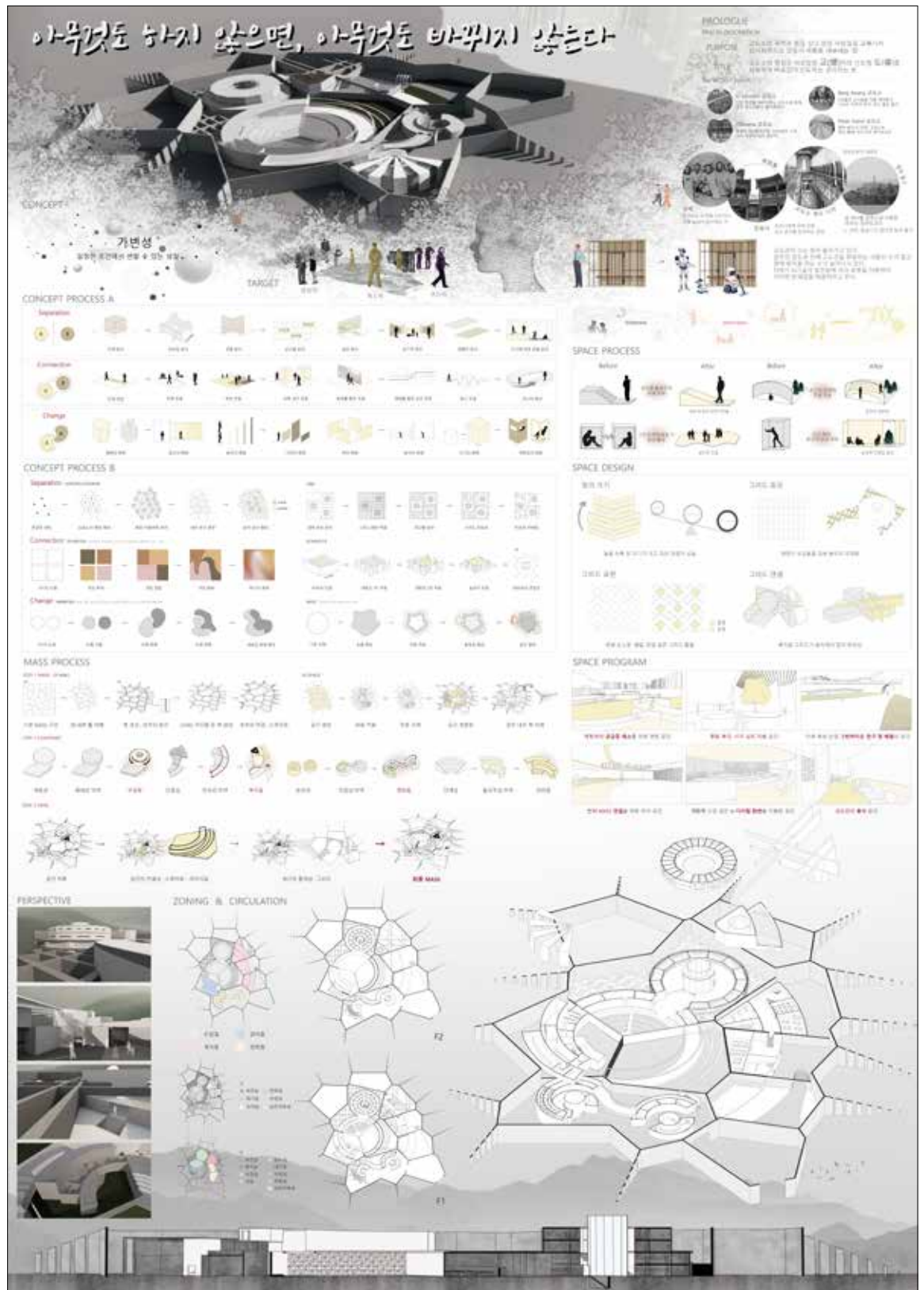
If you don't do anything, nothing changes

박영해, 정세경

대구한의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교도소의 가장 큰 목적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재사회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교도소 대부분은 재사회화를 시키기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사람(재소자, 관리자)의 인권을 보장받기에는 매우 열악한 환경이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AI 기술을 이용한 관리자 로봇을 배치하여 교도관의 업무 환경 개선과 재소자들이 머무는 공간에 디스플레이를 설치하여 無의 공간을 갱생 의지 생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미래 육성 산업 중 한부분인 그린바이오 산업 등과 같이 다양한 교육 시설을 교도소 내에 적용하여 미래 발전에 맞게 재소자들이 사회로 나아갈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생성하였다. 따라서 발전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교도소에 적용됨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교도소로 디자인하였다.

The primary goal of a correctional facility is to rehabilitate individuals who have committed crimes. However, most correctional facilities lack the necessary resources for rehabilitation. In addition, both prisoners and staffs are in a poor environment. To address these issues, we can reduce the workload of the officers by deploying AI administrative robot. Additionally, we installed displays in the spaces where there used to be nothing, providing an environment conducive to self-improvement and fostering the will to reintegrate into society. Furthermore, we will provide also access to various educational facilities and vocational training including future-oriented industries, such as the green bio industry which can have critical impact of lowering re-offending rates. Our new design which is applied of evolving technologies can be the one key in future pris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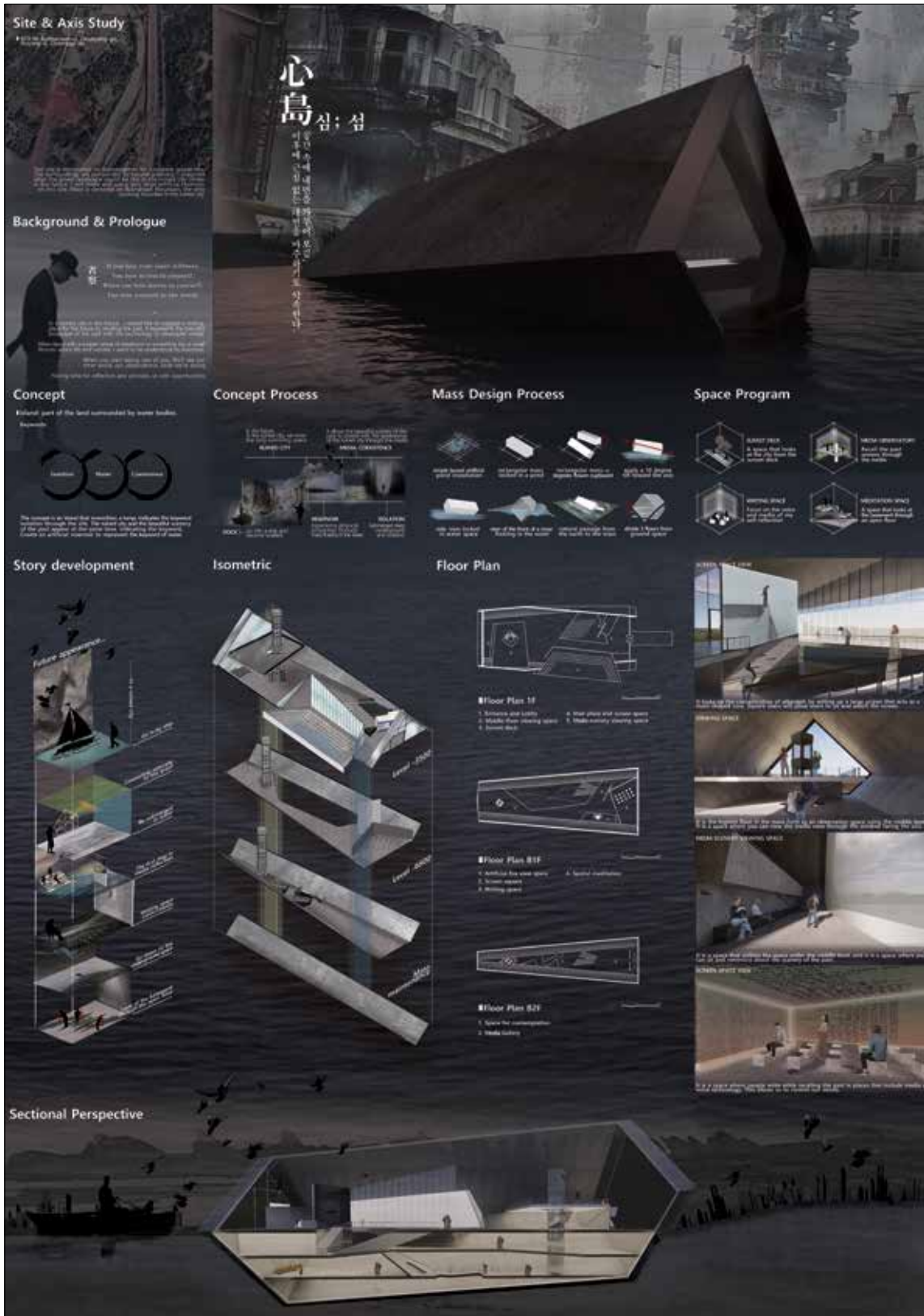
Future Rested Island

김민지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우리는 미래에 급속히 발전하는 기술 변화에 따른 공간이 상상과 기대 속에 존재한다. 이에 대해 역설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공간을 풀어내려 한다. 미래에 폐허가 된 도시 속 우리는 과거 아름답던 모습을 찾아 회상하려고 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우리는 늘 아름답던 기억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가두어 놓는다. 이를 바탕으로 폐허가 된 도시 속 유일하게 과거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휴식의 공간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섬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여 공간을 물 위에 가두어 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이로써 우리는 폐허가 된 도시는 잠시 잊은 채 아름답던 모습만이 남은 공간에 가두어진다. 점차 다시 아름다워질 풍경을 생각하며 미디어로 만들어진 가상의 모습에 잠겨 과거를 회상하며 내면에 집중해본다. 이로써 폐허가 된 도시 속 유일하게 살아남은 과거 아름답던 풍경을 회상할 수 있는 '心島 심:섬'을 제안한다.

We have a space in our imagination and expectation according to rapidly developing technological change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I try to solve the space through paradoxical storytelling. In the ruined city in the future, we imagined trying to find and reminisce about the beautiful past. We don't forget the memories that have always been beautiful and keep them in our hearts. Based on this, we tried to design a rest space that is the only one in the ruined city that has the appearance of the past. With the shape of the island as a motif, the space is confined on the water so that it can be accessed by boat. With this, we forget about the ruined city for a while and are confined to the space where only the beautiful appearance remains. Think about the scenery that will gradually become beautiful again, immerse yourself in a virtual appearance made of media and reminisce about the past and focus on your inner self. This suggests a 'Future Rested Island' where you can recall the only beautiful scenery that survived in the ruined city in the ruined city.





특선  
SPECIAL PRIZE

## The Memory, a Moment

김가현

부천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현대사회는 사회적 결함과 문제로 인하여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주변인의 죽음으로 슬픔과 트라우마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떠난 이를 추모하기 위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고도 도심 속에서 그들을 추모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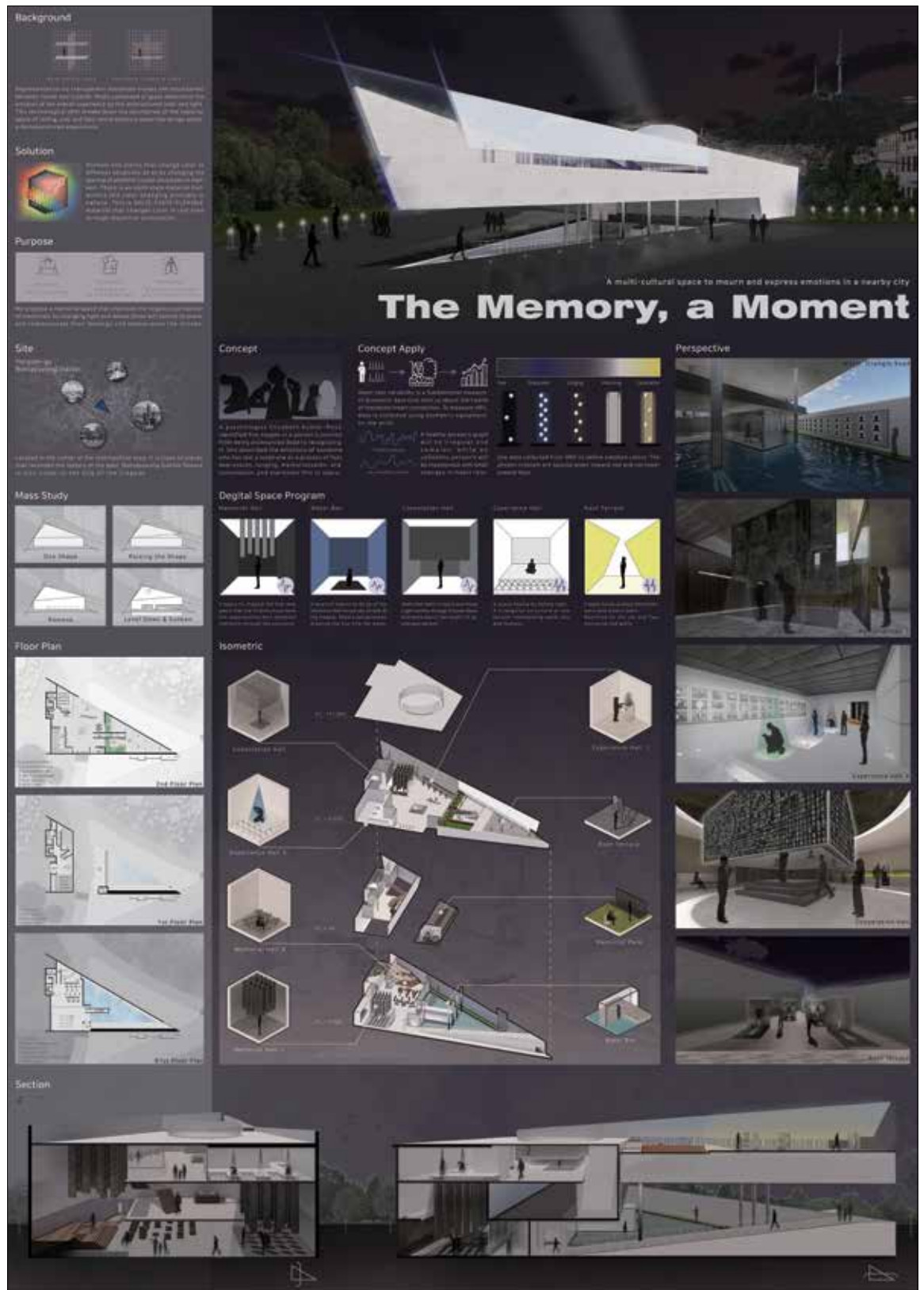
물질로부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비물질적인 재료를 활용하여 공간 경계의 비물질화 경험을 전달한다. 광결정 구조 사이에 간격 변화를 주어 색이 변화하는 고체 유연 소재를 사용하여 슬픔의 감정에 따른 빛을 공간에 따라 적용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새로운 재료가 적용된 곳에서 사랑하는 이의 순간을 기억하고 위로하는 공간을 보여준다.

The modern society is plagued by unfortunate accidents due to social flaws and problems. As a result, people are exposed to grief and trauma due to the unexpected death of their loved ones. Therefore, we propose a space where people can mourn and be comforted in the city center without having to travel to the place of the deceased to pay their respects.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materials, we use immaterial materials to convey an experience that breaks the boundaries of space. Using a Solid State Flexible material that changes color according to the gaps between photon crystal structures, we illuminate the space according to the emotion of grie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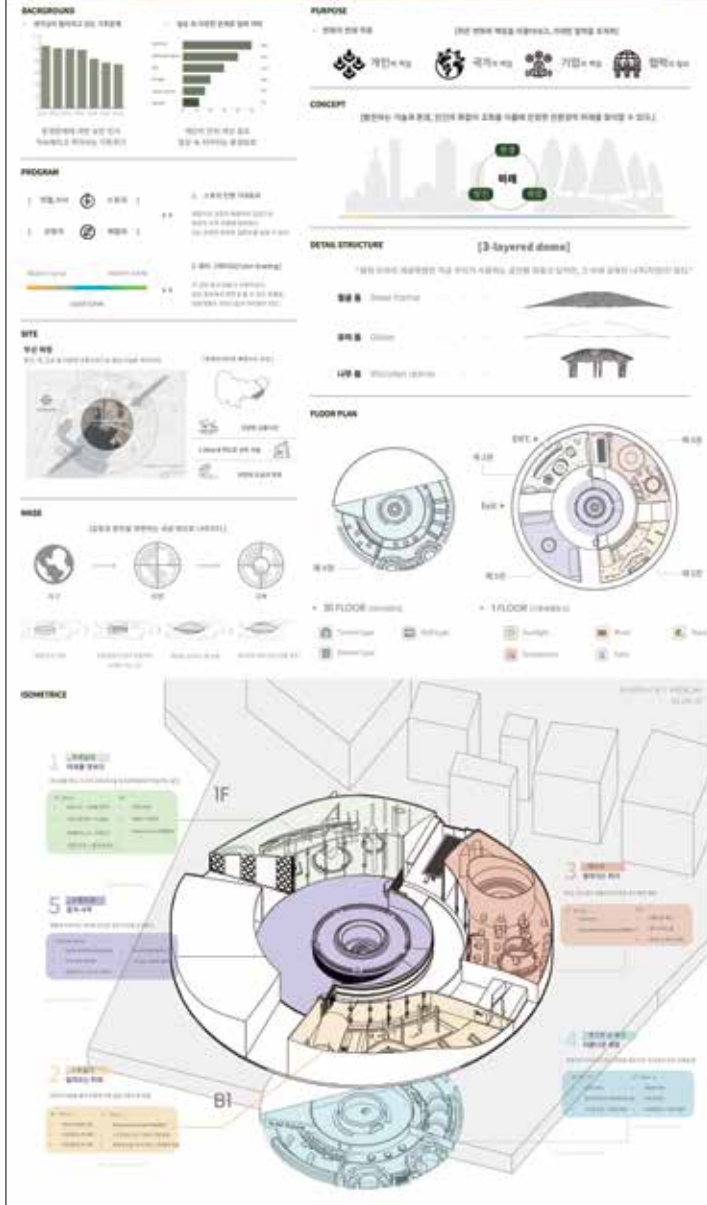
The project shows a space where the new material is applied to remember and comfort a loved one's moments.



## Cliché-Climate crisis and the future

김흥희

백석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전시주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전시이다. 기후위기의 원인과 영향, 대응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 기술을 활용한 전시공간 등을 통해 관람객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전시컨셉]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여 스토리를 전개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관찰하는 관람객들은 어딘가 익숙한 모습과 행동에 경각심을 갖게 된다. 관람객들에게 생김 죄책감 또는 경각심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는 직접 체험을 통해 학습하여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전시의 컨셉이다.

[Exhibition theme] It is an exhibition to inform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and convey a message to create a better future through global cooperation. The cause and impact of the climate crisis, the need for cooperation to respond, and exhibition spaces using technology will allow visitors to experience the seriousness of the climate crisis. [Exhibition concept] Visitors who develop stories using various technologies and observe from a third party's point of view will be wary of familiar appearances and actions. Guilt or vigilance generated by visitors leads to action, and the concept of the exhibition is to learn through direct experience and blend naturally into daily life.



특선  
SPECIAL PRIZE

RESTORATION

유병훈, 이준서, 전예은  
한양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2022년, 화장 장례방식 이용률은 90%대를 돌파할 정도로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은 유족이 추모할 여유도 없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모든 장례가 끝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시신을 태우며 한 구당 160kg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현 장모 산업의 문제점은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추어 자연친화적인 기술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본 프로젝트에서는 고인의 사체를 약품 처리 없이 미생물과 낙엽, 흙으로 덮어 30일 간 자연 분해하는 '자연회귀장' 기술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인위적인 처리 없이 본래 자연적 죽음의 방식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고, 장례 후 나온 흙 또한 자연에 양분이 될 수 있어 추모의 과정 또한 환경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연친화적인 매장'의 방식으로 자연회귀장 기술이 자리잡게 될 미래를 제시한다.

In 2022, the use of cremation as a funeral option is expected to exceed 90%. However, the problem with cremation is that all funerals are over in less than an hour, with no time for the family to pay their respects. It also causes serious environmental pollution, with 160 kilograms of carbon dioxide generated per body burned. These problems of the current funeral industry need to be changed to nature-friendly technology in line with the 2050 carbon neutrality policy. In this project, we aim to utilize the 'natural restoration' technology that naturally decomposes the deceased's body for 30 days by covering it with microorganisms, leaves, and soil without chemical treatment. Through this process, the body can be treated similarly to the natural way of death without artificial treatment, and the soil after the funeral can also be used as nutrients for nature, suggesting a future where the natural restoration technology will be established as a way of 'natural burial' that does not damage the environment during the memorial process.







특선  
SPECIAL PRIZE

## "Shining Light on Myself in Nature"

이채린, 곽재찬  
인제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아름다움에서의 "아름"은 "나"를 상징한다. 즉, 아름다움은 "나다움"이란 의미를 가지게 되며,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외모, 능력과 같은 외적인 요소와 내면, 사상과 같은 내적인 측면에서까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과 개성을 찾아 가꾸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성장시키는 존재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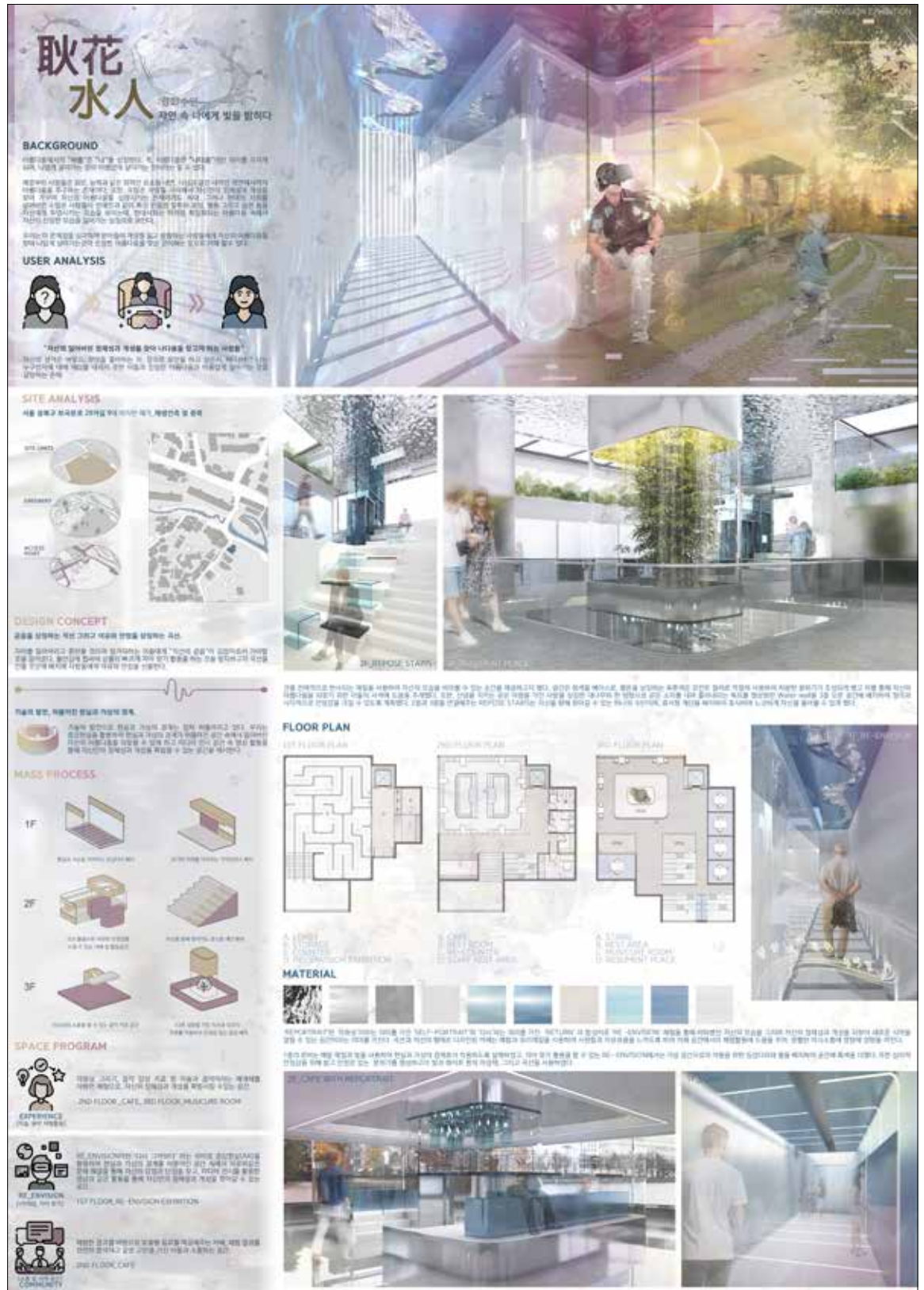
그러나 현대의 사회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과 같이 특정 인물의 말투와 표정, 행동, 그리고 습관 등을 자신에게 투영시키는 모습을 보이는데, 현대사회는 이처럼 획일화되는 아름다움 속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어가는 실정으로도 보여진다.

우리는 이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개성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찾아 나답게 살아가 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을 제시하려한다.

The term "아름다움" (beauty) represents "나" (me), signifying that beauty is a reflection of one's true self. Throughout history, beauty has been perceived in both external attributes like appearance and abilities, as well as internal aspects such as thoughts and emotions.

In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many people tend to emulate celebrities, adopting their speech patterns, emotions, behaviors, and habits. This conformity contrasts with the desire to showcase one's unique qualities in a society that appears to prioritize uniformity.

To address this issue, I propose creating a space for those who are serious about self-discovery and for those who feel lost while seeking their own beauty. This space would provide an opportunity for individuals to uncover their uniqueness and live authentically.



# Hoo-Ha! : Breathing Coral



## Hoo-Ha! : Breathing Coral

설민기, 조재형, 조현지  
호서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산호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자, 생태계의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각종 해양쓰레기, 페어류, 과도한 양식업은 산호의 백화현상과 멸종을 가속한다. 산호의 멸종은 전체 해양 생태계 파괴의 시초이기에, 이를 해결하려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그중 3D 프린터로 구현한 인공 산호는 본래 산호의 역할을 대체해 해초가 번식할 수 있게 하며, 해양 환경을 복원해 궁극적으로 천연 산호를 되살릴 수 있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양식업을 위해선, 해양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을 넘어서는 과도한 양식을 지양해야 한다. 인간과 해양 생태계의 공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지금, 우리는 '산호 구조체'를 통해 미래 양식업의 방향성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에 부하 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인간과 해양생물이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보금자리, 'Hoo-Ha! : Breathing Coral'을 제시한다.

Coral is a repository of biodiversity and an essential presence in ecosystems. However, excessive aquaculture accelerates the deposition and extinction of coral. It is the beginning of the destruction of the entire marine ecosystem, so we must think about how to solve it. Artificial coral made with 3D printers replaces the original role of coral, allowing seaweed to reproduce, and can restore the marine environment to ultimately revive natural coral.

For sustainable aquaculture, excessive aquaculture beyond resilience should be avoided. Through artificial coral cases, we could get an idea of the direction of future aquaculture, the 'Coral Structure'. Based on this, we present "Hoo-Ha! : Breathing Coral". A new nest where humans and marine life can live in harmo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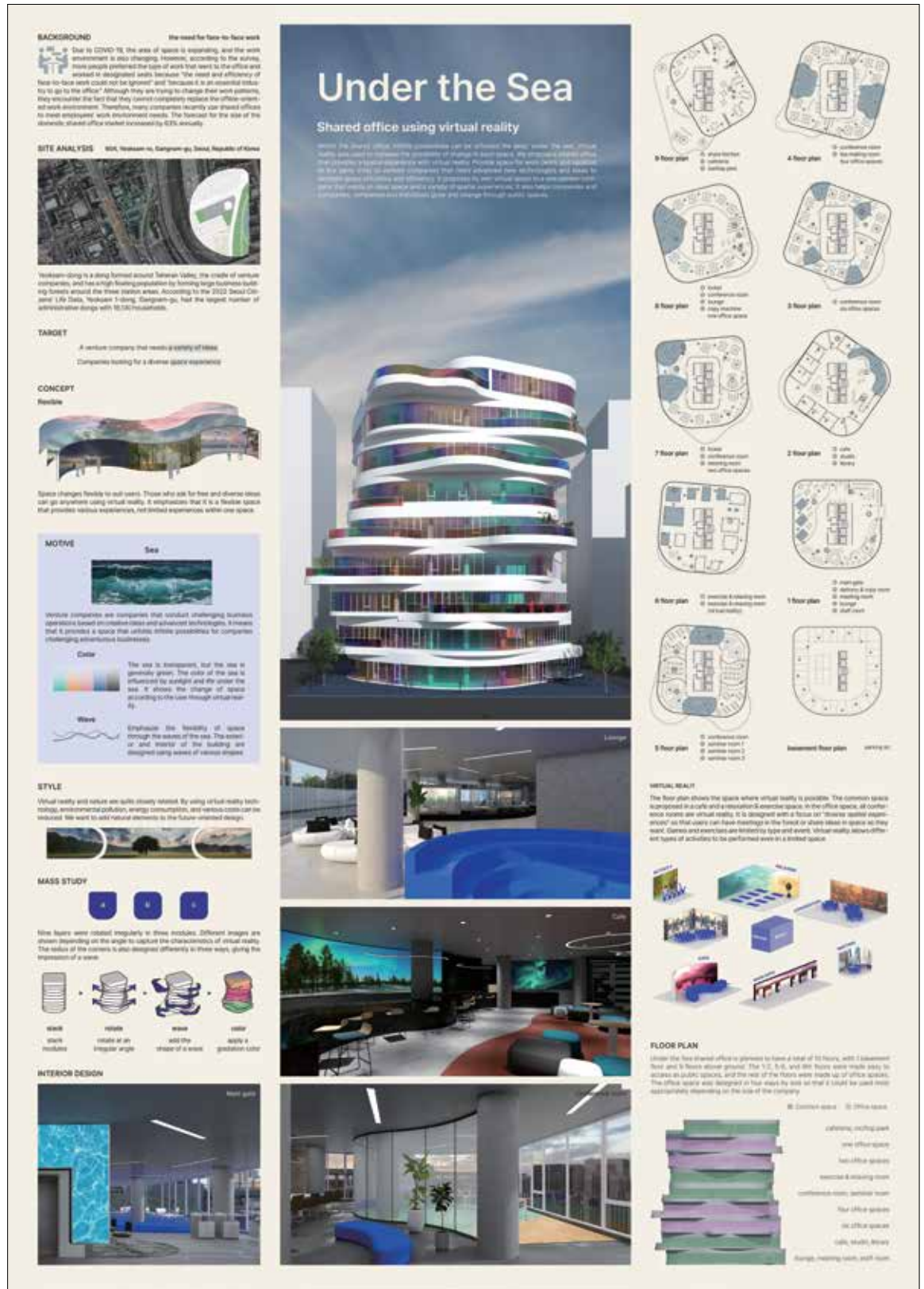
특선  
SPECIAL PRIZE

## Under the Sea

김서윤  
대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코로나 19로 인해 업무환경이 변화되고 있지만 '대면 업무의 필요성과 효율성을 무시할 수 없어서', 사무실 출근이 필수적인 업종이라서라는 이유로 오프라인 중심의 근무환경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사실에 부딪힌다. 최근 많은 기업들이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맞추기 위해 공유오피스를 이용한다. 따라서 벤처기업을 타겟으로 삼아 역세권 주변 대형 업무용 빌딩 숲을 형성하여 유동 인구가 높은 역삼동에 공유오피스를 제안한다.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사업운영을 돕기 위해 가상현실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무한한 가능성을 펼치도록 한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숲에서 회의를 하거나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 경험"에 초점을 두어 설계하였다.

Although the work environment is changing due to COVID-19, it is faced with the fact that the offline-oriented work environment cannot be completely replaced because "the necessity and efficiency of face-to-face work cannot be ignored" and "because it is an essential industry to go to the office." Recently, many companies use shared offices to adapt their employees' work environment. Therefore, by targeting venture companies, a shared office is proposed in Yeoksam-dong, which has a high floating population, by forming a large forest of business buildings around the station area. It opens up infinite possibilities by providing a virtual reality space to help creative ideas and challenging business operations. It is designed with a focus on "diverse spatial experiences" so that users can have meetings in the forest or share ideas in space as they want.





**BACKGROUND**

‘현대 건축 자산, 철거와 보존 그 사이에서’

역사적 원형의 가치와 현대 건축의 가치를 동시에 보존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역사적 원형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 건축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역사적 원형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 건축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공공** (공공)

역사적 원형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 건축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TARGET**

역사적 원형의 가치를 보존하고, 현대 건축의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SITE**

서울 용구 소일로 50

1. 건물 철거 후 역사적 원형을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2. 건물 철거 후 역사적 원형을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3. 건물 철거 후 역사적 원형을 보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특석  
SPECIAL PRIZE

# THE FIFTH GATE of VALUE PRESERVATION

석민영

백석대학교 디자인영상학부 인테리어디자인

현대 건축 자산의 철거와 보존 그 사이에서, 옛건축의 가치를 미래건축 가치로 변환하여, 재생해, 역사성 및 장소성을 보존할 수 있는 공공공간

Between the demolition and preservation of contemporary architectural assets, public spaces can be revitalized, preserving their historicity and sense of place by converting old architectural values into future architectural values.

## THE FIFTH GATE of VALUE PRESERVATION

MILLENNIUM HILLTON SEOUL 제정 프로젝트

**ARCHITECTURAL CASE**

1. 철거의 문제

2. 철거의 문제

**PROBLEMS**

**SOLUTION PLAN**

**CONCEPT**

가치의 현대 (재)탄생, 재해석, 공유하다

**MASS STUDY**

1. 철거의 문제

2. 철거의 문제

